

전통문화 교육으로 전북발전 이끈다

국립전주박물관-고창농악보존회 지역문화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천진기)은 (사)고창농악보존회(회장 구재연)와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은 전라북도 전통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통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조 ▲지역관광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운영 ▲양 기관의 홍보 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협력 ▲기타 상호호선을 위한 사업 협력 지원 등이다.

천진기 관장은 "뿌리와 정통이 있는 고창농악이 열정을 갖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국립전주박물관은 조사·연구·교육을 진행하며 다양한 문화교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천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농악과 전주박물관이 전라북도의 문화유산을 지켜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재연 회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고창농악이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고창을 대표하는 무형문화재로서 고창농악을 널리 알리는 데에 힘쓰며, 동시에 고창농악의 가치를 지켜나가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국립전주박물관이 고창농악보존회와 최근 고창농악전수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회장은 "이번 협약은 고창농악이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해나갈 수 있는 포문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저희 고창농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한편 '조선 선비문화'를 브랜드로 내건 국립전주박물관은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며 선비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통문화유산 교육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사)고창농악보존회는 전수교육을 통한 후진양성과 문화재 공연, 고창굿한마당, 고창농

악경연대회, 기획공연, 초청공연, 고창농악 정리 사업 등을 통해 고창 특유의 멋과 맛, 색깔을 간직한 고창농악을 계승·발전시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박물관의 전시와 교육 등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주박물관과 (사)고창농악보존회는 상호 유기적인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해 향후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교육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도내 중견작가 맞춤형 지원 본격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예술인복지증진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창작활동 중인 50~60대 중견작가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재단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시범운영을 앞둔 '중견작가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은 예향전북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던 중견작가에 집중하고자 마련됐다.

청년과 원로세대 간 샌드위치 세대로 지원방식 시스템의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지원체계에 소외되고 있는 중견작가들에게 새로운 동력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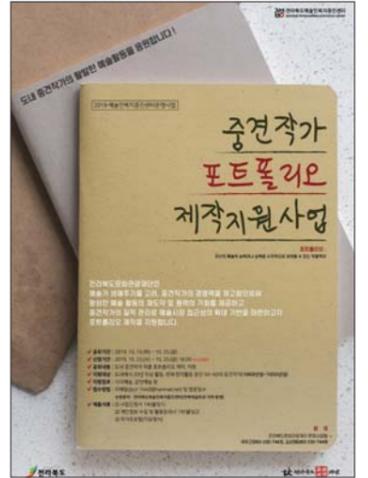
예술가의 생애주기를 고려, 맞춤 지원을 통해 활동의 침체기에 있는 50~60대 중견작가들의 활동성을 회복하고 재도약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청년기부터 현재까지 생산한 창작 결과물의 질적 관리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포트폴리오 제작 결과물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활발히 활동 중인 40대 전후 후배작가를 코디네이터로 매칭하고, 다른 세대의 작가 간 협업을 통한 상호 교류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20년 이상 활동하고 현재 창작활동 중인 시·창작, 공예 장르 등 50~60대(1960년생~1969년생) 중견작가다.

활동시기 별 대표작, 작가 프로필, 작가 노트 등 활동 경력을 체계화해 정리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제작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전북 예술인복지증진센터를 방문하



거나 이메일(jb_7447@daum.net)로 하면 된다. 문화사업팀 임진아 팀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활동에 있어 다소 침체할 수 있는 중견작가들에게 새로운 영감과 에너지가 되길 바라며, 향후 중견작가들의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단 내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도내 예술인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사업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문화사업팀(063-230-7443)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

국립무형유산원-국악방송, 아카이브자료 활성화 '맞손'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과 국악방송이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아카이브 자료의 활용과 홍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정부 혁신의 하나로 양 기관이 무형유산의 홍보와 무형유산 기록물 자료 활성화를 위한 협약이다.

국립무형유산원이 보유·관리하는 영상기록물을 국악방송에 제공해 제작 예정인 프로그램 '전통문화예술TV'(가칭)를 통해 국민이 정

기적으로 영상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악방송은 제작한 방송 영상을 필요시 국립무형유산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전북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은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의 무형유산연구조사 기능의 명맥을 잇는 기관이다.

1960년대부터 생산·수집된 무형유산 원천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http://www.ihg.go.kr)로 구축해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뉴스



제15회 산골 국악한마당 공연이 17일 장수군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 장수 산골국악한마당 성료

장수군이 군민의 문화공연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제15회 산골국악한마당 공연이 17일 한누리전당 산디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다.

장수군이 주최하고 (사)금강유영애소리보존

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공연은 제23회 장수읍 노인회 날 기념식과 함께 펼쳐져 의미를 더했으며 화현과 바라, 단막극 '불부과 마당쇠' 남도민요, 판굿과 버구·북춤 등의 다양한 공연이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장수읍 군수는 "제15회 산골 국악한마당을 장수읍 노인의 날 행사와 연계 추진한 만큼 어르신들과 함께 다양하고 신명나는 국악의 향연을 즐기실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문화공연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군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내일 경연대회 개최

(사)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이사장 송병섭)는 2019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경연대회를 내일 임실치즈테마파크로 세계탑관광 일원에서 개최한다.

특히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예분과에서도 다양한 체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경연대회는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들이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고 생활문화의 비전과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북으로 구성된 난타동호회와 통기타동호회, 북미와 숙녀, 6개 지역의 리인댄스동호회 등 13

개 동호회가 참가해 기량을 선보이며, 시상은 최우수상 등 10개 동호회에 대해 지원된다. 총 상금은 500만원과 의상임대비가 지원된다.

또한 체험으로는 압화동호회의 북쪽블러드 만들기, 장승동호회의 솟대만들기체험, 뒬뚝꽃차 동호회의 꽃차체험, 끌림동호회의 모래놀이체험, 전래놀이체험 등이 진행된다.

송병섭 이사장은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경연대회에서 평소 갈고 닦은 기량을 멋진 끼와 멋으로 선보이는 무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캠핑하기 딱 좋은 곳... 무주 빨강치마리조트

홈페이지: <http://www.milmo.co.kr> 전화: 063-322-7000